



www.at.or.kr

농식품 소매가격조사

4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4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중국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4. 주류 (소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소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6. 소스류 (조미료)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조미료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중국 위안화의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4월 21일자 기준으로 작성, 1위안= 164.91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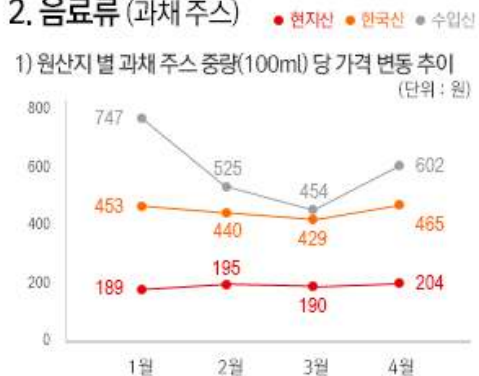
1~4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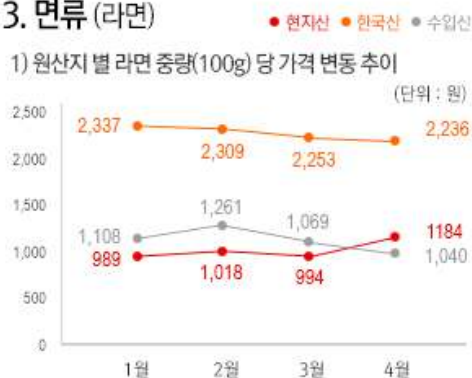
1.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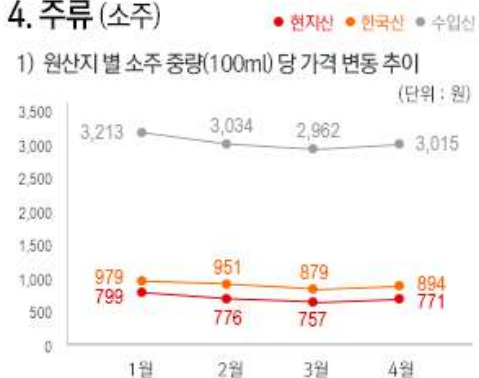
2. 음료류 (과채 주스)



3. 면류 (라면)



4. 주류 (소주)



5. 제과류 (비스킷류)



6. 소스류 (조미료)



※ 2월, 3월, 4월의 경우 한국산 제품의 판매가 확인되지 않음

조미김

수요 감소 ▼ 가격 하락 ▼ “ 중국 사드배치 반한 감정 = 중국 판매량 반토막 ”

중국 산둥성 지역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유통업체인 가가열(Jiajiayue)社의 담당자 Ms. Sun Caiyan의 인터뷰 결과, 장수식품社 외 여러 한국산 조미김 제품의 판매량이 급감했다고 밝혔다. 하락의 최대 원인으로서는 한국-중국 간의 정치적인 요인으로 한국 사드배치를 언급했다. 3월 초순경 판매 자체를 중지하였다가 중하순경 판매를 다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한국 식품의 판매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떨어진 판매량을 회복하고자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그에 따른 가격 인하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김사랑 꽃게김]

면류

가격 하락 ▼ “ 팔리지 않는 한국 식품, 유통기한 때문에 가격 다운 프로모션 진행 ”

중국의 최초 종합 유통업체로 알려진 Eternal Asia Supply Chain Management Ltd.의 전자상업본부 소속 Ms. Renee Ruan과의 인터뷰 결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제품은 없으나 한국 면류 제품의 프로모션 진행으로 가격이 조금 하락했다고 밝혔다. 우동, 라면, 비빔면 등 다양한 제품 중 일부 소수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나 따뜻해지고 있는 계절적 원인으로 프로모션 할인행사의 진행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최근 한국식품의 경우 정치 이슈와 같이 민감한 주제로 판매량이 급락 추세지만 일부 품목의 프로모션 진행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각이라 추후 판매량 및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국산 면류 제품]

스낵류

수요 감소 ▼ “ 따뜻한 계절로의 변화, 몸매관리로 스낵류 수요 줄어 ”

국내 및 수입 제품을 중국에서 대량 취급 중인 수입-물류 종합유통업체인 Eternal Asia Supply Chain Management Ltd.의 전자상업본부 Ms. Renee Ruan 담당자에 따르면, 계절이 변하면서 다가올 여름에 대비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낵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라 전했다. 이와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과자의 수요 감소와 한중 정치적 문제로 인해 한국식품 보이콧을 감행하는 소매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 예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판매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스낵제품]

수요 증가 ▲ “ 맛, 가격, 유통망 확대로 중국시장 내 안정적으로 안착 ”

중국 스낵 전문 수입·유통업체인 成都市思味思我国际贸易有限公司(Chengdu Sweetrip International Trading Co., Ltd.)의 대리 Ms.Guo에 따르면, KDV Group社의 러시아 자색 카라멜의 판매량이 증가했음을 밝혔다. 높아진 판매율의 원인으로서는 해당 제품의 인지도 상승과 대중화 성공을 꼽았다. 해당 제품이 중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과거 북부지역에만 국한되어 판매를 했으나 현재 남부지역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유통하고 있어 중국 내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카라멜이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달콤함을 가지고 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어 구매 고객층 범위가 넓어 제품의 대중화에도 성공하였다고 덧붙였다.



[KDV Group 카라멜]

가격 하락 ▼ 수요 감소 ▼ “ 경쟁제품의 증가, 시장 포화상태에 줄어드는 수입 비스킷 자리 ”

중국 내 수입식품 수입·유통업체인 成都市思味思我国际贸易有限公司(Chengdu Sweetrip International Trading Co., Ltd.)의 Ms. Guo 대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벨기에 Lotus Bakeries社의 카라멜라이즈드 비스킷의 가격이 점점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중국에 수입되고 있는 카라멜라이즈드 비스킷의 양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매 고객들의 사랑도 점점 식어 외면 받는 제품이 되었다고 전했다. 비슷한 맛을 가진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이 확대되었기에 유럽 제품이라는 이유로 독점적 사랑을 받는 시기는 지났다고 전했다. 또한, 저가 동남아 경쟁제품의 등장도 가격하락의 중대한 원인 중 하나임을 전달했다. 이에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어 유통업체들의 이윤 추구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중국 시장 내 수입 비스킷의 포지션이 약해지는 추세라 설명했다.



[Lotus社]